

資料

- 베트남의 비료현황 -

자료 : ASIAFAB Winter 2000

베트남 정부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포용 ; 도이모이 즉 경제개혁을 주창한지 14년이 되었다. 1986년부터 경제의 변혁은 막대하였고 특히 농업에 있어서 그러하였다. 그 시대 국민의 일부는 기아에 시달렸으나 오늘날 베트남은 가장 큰 쌀 수출국의 하나로 승격하였다. 그러나 국내 비료 생산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는 아직 구체적인 결과를 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 아세안의 붕괴에 따라 경제가 계속 성장하지 못할 약점을 갖게되었다고 보도하였다.

1990년대 초반에 베트남이 외국투자가들에게 “ hot ticket ”인 때가 있었다. 도이모이 계획을 향한 성공적인 출발의 뒤를 이어 경제성장은 넌간 8-10%를 이루었고, 1994년에 미국은 17년간의 무역억제를 해제하였으며, 다음해에 베트남은 동남아세아국가연합 (ASEAN)의 일원으로 가입하였고, 아세아의 “ 경제 호랑이 ”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행복감은 사라지기 시작하여 경제성장은 1998년에 5.8%, 1999년에 4.3%로 낮아졌고, 이러한 아세아의 성장 둔화는 일부 비난의 대상이 되겠지만 경제 내부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점들이 외국투자가들에게 실망과 이들 나라로부터의 철수를 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고, 베트남 정부의 보수주의자들 사이의 우려의 결과로 주요 경제개혁은 1993년에 대부분 정체되었다.

\$

인접국가인 중국으로 눈을 돌리면 중국인들의 부패와 대중의 건강과 교육제도의 부족 그리고 도시 지역의 벼락부자와 정부의 지원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작농들 사이의 점증하는 수입의 차이 등 이 나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들을 피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 결과 좌절하는 관료주의자들의 대부분은 무질서한 법제도, 혼란상태의 하부구조, 외국투자기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고 국가도 투자가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한 원인으로 보이며, 중국 정부의 생산 분할 합의에 관한 교섭에서도 서방 투자가들에게는 실망이 되고 있다.

아세안의 붕괴가 이러한 사태를 맨 먼저 초래한 원인이 되었고 새로운 투자가 90% 하락하였으며 국내 회사들 사이에 파산과 악성 채무가 발생하였다.

자본의 흐름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붕괴에 대해 어느 정도 활력소의 역할을 하였지만 외국회사들은 인내성을 잊기 시작하여 새로운 투자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었다.

베트남이 자체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러한 문제들과 맞부딪치며 개혁으로 나가겠다는 것이 세계 재정가들의 칭찬을 받아왔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문제점들을 치유할 주요 개혁의 내용이 고안되었지만 아직 이들 많은 방안의 내용이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자체가 년간 10억불을 수출로 거둘 수 있는 미국과의 무역조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 같은 분위기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투자가들은 의문점을 갖고 있다.

- 공급원료 -

베트남의 부흥에 있어서 석유와 가스부문이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일 것이다. 이 부문이 외국투자의 8%를 흡수하였으며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외화획득이 되고 있다.

1997년에 950만톤의 원유가 수출되었는데 이 원유의 대부분은 베트남 국영에너지회사인 Petro-Vietnam과 구쏘련의 VietSovPetro가 오랜 협작으로 개발한 Bach Ho에서 채굴한 것이다.

또한 동남 해안지대의 수 개소에 충분한 가스매장량을 갖고 있는데 이 매장량은 1900억 m³으로 추산된다.

\$

그러나 개발이 늦어 1998년에 생산이 5억 m³만이 생산되지 않았는데, 이는 근해 토질의 복잡함과 Petro Vietnamese 운영자들과 협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어 일부 주요사업에서 철수하였기 때문이다.

BHP와 말레이지아의 Petronas는 최근에 원유와 천연가스의 개발에서 철수하였으며, BP Amoco, Statoil과 인도의 ONGC는 Nam Con Son 퇴적구조에 추정된 550억 m³의 가스매장량을 개발하기 위한 합작투자를 설립하였다.

Vung Tau에 있는 암모니아 - 요소 공장에 가스를 공급한 곳이 이 유전이다. 그러나 BHP가 콘소시엄을 떠나게된 원인이었던 가스가격 결정에 관한 계속된 논쟁은 아직 개발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베트남 동쪽의 Spratly 군도는 중국과 계속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 지역은 매우 풍부한 원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데, 계속된 영토분쟁 - 이 영토분쟁은 마침내 수회에 걸쳐 해상선박 사이의 충돌을 일으켰고 - 서방오일회사들은 탐사를 포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오래된 냉전의 동맹국인 러시아로부터 계속된 지원이 있었고 또한 러시아의 Zarubezneft와 합작회사인 VietSovPetro가 계속하여 지원하였다.

러시아의 국영 가스 전매업체인 Gazprom도 Tonkin만의 저장된 가스를 개발하는 협력 계약을 가지고 베트남을 방문했다. 이 계약에는 가스를 연안으로 운송할 파이프라인의 설치와 농축가공공장이 포함되어 있다.

- 비료 생산 -

베트남에는 현재 단 하나의 질소질비료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이 공장은 Habac 질소질비료회사(Hani-chemco)의 공장으로 Bac 성의 Bac Giang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공장은 오래된 쏘련의 암모니아-요소공장으로 가스화한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며 연산 120,000톤의 생산능력과 100,000톤의 통상적인 생산량을 갖고 있다.

현재 베트남의 국내 비료생산의 대부분은 인산질 비료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는 500백 만톤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Lao Cai 광산으로부터 500,000톤의 인광석이 생산되고 있다.

~~~~~

이 매장량의 대부분은 Phong Chau성 Lam Thao에 있는 Lam Thao Superphosphate and Chemicals Company에서 과석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이 회사는 년산 560,000톤의 과석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Ninh Binh과 Van Dien에서 용성인비(FMP) 생산을 위해 보내지며, 이 두 공장의 생산능력은 모두 200,000톤이다.

또한 수 개의 배합비료 공장이 세워졌으며, 1998/99년 동안에도 새로운 배합비료 공장이 건설되었는데 2개의 합작회사와 1개의 국내 성장업체에 의해 건설되었다.

첫 번째 회사인 Baconco는 61%가 프랑스의 SCPA가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베트남의 파트너들이 소유하고 있다. 1998년 8월에 년산 120,000톤의 공장이 가동되었고, 제 2공장은 인산염 분쇄공장과 NP 혼합비료 공장을 포함하여 2000년 3월에 가동될 것이다.

Baconco는 남베트남의 Varia Serece 항구시설 근처의 Phu My 산업공단과 항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기타 합작회사는 일본의 베트남회사인데 이 업체는 일본무역회사인 Nissho Iwai(60%)와 SFC이며 나머지는 Vina-chem이 갖고 있다. 이는 남 베트남의 Long Thanh에 350,000톤의 년산능력을 가진 공장이다.

SFC는 Lam Dong성 Duc Long에 30,000톤의 배합비료 공장을 가공시켰고, 아울러 Ho Chi Minh시 지역에 4개의 공장도 건설하였는데 이로써 SFC는 배합비료 공장의 생산능력이 350,000톤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배합비료 공장의 급격한 성장은 베트남의 국내 생산능력을 100만톤에 이르게 만들었다.

### - 비료 소비 -

베트남은 급격한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1995년에 7400만명에서 오늘날에는 8000만명을 보이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여전히 농업사회 계층 비율이 높으며, 인구의 70%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

도이모이 이전에는 농업이 비교적 원시적이며 비효율적이었고, 쏘련으로부터 공급되는 비료는 제한적이었다.

베트남은 도이모이 이후로 집단농장을 해체하고 농토 소유권의 보장과 농산물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제도를 설정함으로써 농업부문이 급속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 결과로 생산이 상승하고 쌀, 커피, 고무, 사탕수수 및 땅콩을 포함하여 수출을 위한 황금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비료의 수요가 부단히 증가하였다.

지금 베트남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쌀 수출국이며, 세 번째의 커피 수출국으로 1998년의 커피 생산은 500,000톤에 달했다.

베트남의 비료 주요 소비지역은 남쪽으로 비옥한 메콩강의 삼각주 지역이며 이 지역의 비료 사용량이 전체 사용량의 70%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유일하게 평지가 넓게 펴진 곳이며, 중앙지역과 북부지역은 산악지대로 해안의 넓이가 단지 2-3km에 지나지 않는다.

베트남의 비료 사용량 증가가 표 1에 나타나 있는데 1997년의 수치인 1 : 0.35 : 0.17의 수치는 IFA가 개발도상국가의 이상적인 수치인 1 : 0.56 : 0.2와 비교하여 다소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을 위한 많은 여지가 남아 있다.

1995년은 수도작에 대한 비료 사용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26 kg/ha로 IFDC의 조사에 따른 일본, 한국, 중국의 수치보다 10배나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은 베트남에서 사용되는 주요 비료의 소비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질소질과 인산질의 주 소비원은 요소와 DAP임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의 DAP 소비는 급격히 증가하여 1991년의 년간 소비량이 130,000톤에서 최근에는 400,000톤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배합비료 공장들의 신설에 따른 것이다.

베트남의 요소 소비량도 1995년의 147만톤에서 2000년도 190만톤으로 추정되며 2005년 까지 년간 소비량이 23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 비료 수입 -

수요의 증가와 국내 DAP 및 요소의 생산능력 부족은 베트남을 비료 수입국으로 만들었는데, 인도와 중국에서의 국내 요소 생산능력이 증대된 이후로 베트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

큰 요소 수입국이 되었고 미국은 가장 많은 요소를 수입하고 있다.

그림 2는 베트남의 1999년도 요소 주요 수입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수입처이며 이는 베트남의 요소 수입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이 인도네시아의 주요 시장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년간 400,000톤의 DAP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 대부분은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끝으로 년간 350,000톤의 염화가리를 배합비료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와 구조련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1999년 9월에 베트남의 농업 및 농촌개발부처가 정부에 2000년도에는 약 295만톤의 비료를 수입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하였다. 이 건의는 350,000톤의 염화가리와 300,000톤의 황산암모늄, 400,000톤의 DAP가 포함된다.

수입은 3개 주요항구를 통하여 들여오고 있는데, 처음 두 항구는 남쪽 Ho Chi Minh시 (Saigon)와 북쪽의 Haiphong이다. 각 항구는 최고 20,000 dwt급의 선박을 접안할 수 있으며, 이 항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연관된 이익은 특히 도로와 철도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항구의 개발도 촉진시켰는데 주로 Ho Chi Minh시로부터 70km이상 떨어진 Vung Tau성의 Phu My에 있는 Baria Serece 항구이다.

프랑스의 SCPA의 계열사인 Norsk Hydro와 베트남의 몇몇 지방회사가 국제재정회사와 노르웨이 개발협회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최고 40,000 dwt급 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 부두 시설과 컨테이너 항구를 확장하였다.

또한 이 항구는 호치민시의 최고 9m 견인 높이와 Haiphong의 6m 견인 높이와 비교하여 최고 15m의 견인 높이로 선박들을 취급할 수 있다.

확장으로 인해 하역 용량이 60,000 dwt가 되었고, 이 항구는 벌써 운송료를 호치민시와 비교하여 \$6/t 추산하여 인하하였고 실제로 년간 400만톤의 화물을 취급할 것이다.

- 새로운 수입구조 -

\$

금년까지 베트남의 무역부는 비료 수입 쿼터를 Vigecam, Vinefood, Centrimex와 같은 국영회사에게만 할당하였다. 그리고 무역부는 승인 받은 수입업자가 수입할 비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하였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새롭고 자유화된 정책을 표명하면서 승인 받은 수입업자들에게 어떠한 종류와 수량이라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여 지금까지 약 52명의 자유 수입업자들이 승인을 받았다. 이 제도는 배합비료의 원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정부가 계속하여 종류와 수량에 관한 수입 허가를 발행할 것이다.

최근 몇 달 동안에 야기된 문제들 중 하나는 비료 비축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메콩강의 홍수로 인한 비료 이용 계절의 지연으로 국내 소비가 둔화되었다. 또한 국제비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1999년 1월부터 11월까지 비료 수입은 310만톤이었는데 국내 소비는 253만톤으로 이었다. 이 경우 요소의 수입은 165만톤의 국내 소비에 비하여 180-190만톤으로 계획되었고, 배합비료의 경우 국내 생산이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데 약 130,000톤의 배합비료가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되었다.

금년도 비료 수입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제도가 295만톤으로 계획된 물량을 초과 할지 아니면 적정한 량을 유지할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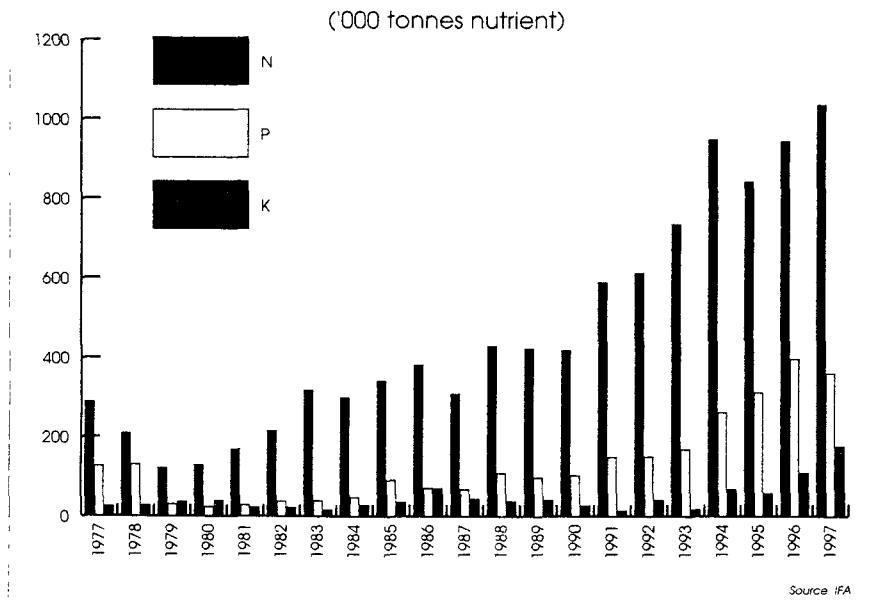
< 표 1. 베트남의 1997년도 비료 소비량 현황 >

('000 TONNES NUTRIENT)			
	N	P	K
Ammonium sulphate	49	-	-
Urea	882	-	-
DAP	63	161	-
NPK	45	45	45
SSP	-	111	-
KCl	-	-	132
Other	-	45	-
Total	1039	362	177
All nutrients:		1558	

Source IF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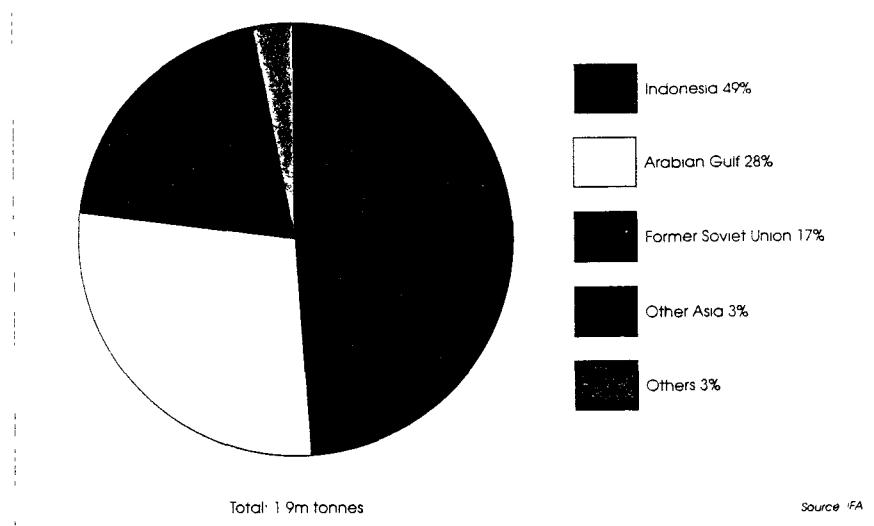
\$

< 그림 1. 베트남의 1977-1997년도의 성분별 소비량 현황 >



Source IFA

< 그림 2. 베트남의 1999년도 요소 수입 현황 >



Source IFA